

동아

拷問당한 사람의 고통과 배상

고문당한 사람의 영혼의 고통과 배상... (Introductory text)

『拷問과 배상』... (Main text paragraph 1)

영광이나 영광자가... (Main text paragraph 2)

『拷問과 배상』... (Main text paragraph 3)

고문으로 인한 고통은 그 당사자에 한정되지 않는다. 그 가족은 말할 것도 없고 고문을 수단으로 유지된 政治權力의 악재를 남의 사회 전체가 피해야 할 수 있다.

마지막 82년의 權仁淑... (Text paragraph)

그 재판장의 재판이... (Text paragraph)

물론 고문으로 인한 영구적인 처벌이다. 고문자를 처벌하기 위한 고문당한 피해자를 보충하기 위한 고문자의 무책과 이기다. 진정한 法の 支配를 확립하고 사회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고문자는 단검자 처벌되어야 한다.

다시 고개든 고문악행

문부식씨등 4명 “안기부서 구타·자백 강요”

“상처 치료할 시간 벌기위해 접견금지” 의혹

1989. 8. 23

화가 차일환(30)씨와 서경원 의원에 대한 안기부와 검찰의 고문문제가 논란을 빚고 있는데 이번에는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문부식(30)씨와 고현주(27·전민련 국제협력국 간사)씨가 안기부 조사과정에서 수사관으로부터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 한동안 잠잠하던 고문시비가 다시 일고 있다.

재야법조계는 이와 관련, 안기부와 검찰의 피의자에 대한 변호인접견금지조치가 고문에 의한 상처를 치료할 시간을 벌 목적이 아니냐는 의문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문부식씨는 21일 오후 서울구치소에서 김동현 변호사를 만나 “지난달 28일 새벽 2시께 안기부로 연행돼 가자마자 작은 키의 뚱뚱한 40대 남자가 군복으로 갈아 입힌 뒤 ‘건방지다’며 오랜시간 동안 무릎을 꿇리고 양팔을 앞으로 뻗치게 하고는 대형 호치키스를 가슴에 던졌으며 벽쪽으로 밀면서 주먹으로 얼굴 등을 마구 구타했다”고 말했다.

문씨는 이어 1백70cm 가량의 키에 마르고 인상이 험악한 수사관으로부터 손으로 뺨과 목을 심하게 맞았으며 구두발에 명치를 채어 쓰러진 채로 등을 수없이 짓밟혔다”면서 “연행돼 2~3일 동안 구타와 협박을 하며 서경원 의원과 임수경씨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자백을 강요,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술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문씨는 “B137호실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주위에서 비명과 울부짖는 소리와 함께 수사관의 고함 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왔다”면서 “다른 사람들도 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한 것 같았다”고 주장했다.

또 22일 오전 10시20분 서울구치소에서 김 변호사를 접견한 고씨도 “안기부 수사관이 임수경씨와 관련이 있다고 몰아붙여 이를 부인하자 ‘맞아볼래’하며 수없이 구타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평양축전기간에 전 시된 절개그림 ‘민족해방운동사’와 관련, 지난 6일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된 화가 차일환씨와 서경원 의원도 안기부와 검찰 조사과정에서 잠을 자지 못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구타를 당해 허위진술했다고 변호인 및 가족에게 말한 바 있다.

한편 차씨와 같은 혐의로 지난 4일 구속된 민족민중미술운동전국연합 공동의장 홍성담(34)씨에 대한 변호인 접견이 20여일이 되도록 차단되고 있어 홍씨 역시 안기부에서 고문을 당하지 않았겠느냐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안기부가 변호인 접견을 금지시키는 것이 엄연한

불법임을 알면서도 계속 그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은 그들의 주장인 수사상 필요에 의해서라기보다 구타 등 고문에 의한 상처를 치료해 흔적을 없앨 시간을 벌 목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주명수 변호사는 “비공개밀실

수사를 통해 심리적 공포와 압박감에 의해 얻어진 자백은 그 진실성을 의심치 않을 수 없다”며 “이제껏 관행처럼 되어온 그같은 수사방법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말했다.

최병모 변호사는 “우리 사회에

간첩혐의 피의자의 인권은 없다는 인식이 깔려 있는 것은 불행한 현실”이라며 “법앞에 모든 이가 평등하다는 평범한 진실을 새삼 되새겨 보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문사실 폭로했다고 '보복고문'

차일환씨 주장 "진짜 맛 보여주겠다" 마구 때려

1989. 8. 26

홍성담씨 "침대각목 구타...허위자백"

국가안전기획부에서 고문당했다는 주장이 잇따르는 가운데 접견은 변호사와 가족에게 고문사실을 털어놓은 차일환(30·한겨레신문) 18일자 10면 보도)씨에게 안기부가 "고문 사실을 폭로했으니 진짜 고문맛을 보여주겠다"면서 보복고문을 가했다는 주장이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24일 오후 3시계부터 2시간 동안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차씨를 접견한 김선수 변호사와 차씨의 부인 남규선(26)씨에 따르면, 차씨는 17일 고문사실을 부인 남씨 등에게 털어놓아 이 사실이 18일자 아침 신문에 보도되자 바로 이날 안기부 수사관이 신문을 들이며 "이제 신문에도 났으니 고문이 뭔지 맛 좀 봐라"면서 두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을 집중 구타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차씨는 또 자신이 머리를 벽에 대고 열중쉬어 자세를 취한 상태에서 무차별 구타를 당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또 차씨에 앞서 구속된 홍성담(34)씨도 이날 서울구치소에서 김 변호사와 어머니 율덕영(58)씨, 여동생 현희(28)씨에게 지난 달 31일 안기부에 강제연행된 뒤 3~4명의 수사관이 한꺼번에 들어와 야전침대 각목으로 손과 머리 등을 마구 때리는가 하면 책상 위에 손을 올려놓고 손등을 딱딱한 슬러퍼로 때렸다고 말했다.

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접견 당시 홍씨의 오른쪽 무릎에 멍든 자국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 홍씨는 옷을 발가벗긴 상태에서 하루 2~3시간씩 두 손을 들고 무릎을 꿇은 채 구두발로 무릎을 짓밟혀 생긴 멍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홍씨는 이같은 고문에 못이겨 "북한에 한 차례 다녀왔다"고 두 번이나 허위자백한 뒤 이를 번복했으며 안기부수사관들로부터 "북한공작원에게 돈을 받았다" "평양 축전에 참가해 미술운동의 주도권을 장악하라는 지령을 받았다"는 등의 허위진술을 강요당했다고 변호사에게 말했다는 것이다.

홍씨는 지난 22일 검찰에 송치된 뒤 서울지검 공안부 김학의 검사실에서 조사를 받을 때도 안기부요원들이 옆에서 감시를 해 공포심에 사로잡혀 "북한공작원으로부터 5천달러를 받았다"고 허위자백했다고 김 변호사에게 털어놓았다는 것이다.

또 함께 구속된 민족민중미술 운동전국연합 건설준비위원회 공동대표 정하수(38)씨도 머리를 바닥에 바고 손을 등뒤로 잡는 '원산폭격'을 취한 상태에서 구타를 당했다는가 하면 "홍씨는 간첩인데 그가 재미간첩 성낙영으로부터 공작금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지 않느냐"고 허위자백을 강요당하는 등 심한 고문을 당했다고 김

변호사에게 털어놓았다는 것이다. 한편 가족들은 안기부장과 수사관들을 검찰에 고소하는 한편 홍씨의 상처에 대해 증거보전신청을 법원에 낼 예정이다.

안기부는 지난 3일 홍씨를 구속한 뒤 한번도 접견 면회를 시켜주지 않은 채 구속만기일인 지난 22일 검찰에 송치했으며 법원은 지난 14일 변호인 접견금지 취소에 대한 준항고를 접수하고도 결정을 미루다가 송치 이후인 지난 24일에야 비로소 접견허가 결정을 내렸다.

안기부 고위관계자는 이에 대해 "혹시 있었다면 수사관이 혐기를 못이겨 뺨을 때리는 정도는 있을 수 있겠으나 그 이상의 고문이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그같은 고문주장은 공무원에 대한 모독"이라고 말했다.

1989년 8월 26일

1989년 8월 26일



김 종 철

113

놀부라는 형을 둔 몰락한 양반인 흥부는 이조 후기 사회의 현실을 다양하게 반영한다. 판소리 대본인 <정정렬본 흥보가>를 보면 흥부는 아내와 자식들이 굶는 모습을 보다 못해 매품을 팔러 나간다. 마을의 죄수가 곤장 열대를 맞게 되었는데, 그것을 대신 맞아주면 '공정 가격' 서른 냥에 덤으로 다섯 냥을 얻어준다는 소리에 혹은 흥부는 사또의

김부실을 찾아간다. 매품을 팔려고 줄을 지어 기다리는 사람들 틈에 섞여 흥부는 서른다섯 냥의 꿈에 부풀어 있었으나 막상 차례가 오자 누군가가 새치기를 해서 그 '계약'을 받아간 것을 알고는 땅바닥에 주저앉아 탄식한다.

이 해학은 봉건사회의 '대리형벌'을 상징한다. 그런 사회에는 기결수 대신 형벌을 당하는 관행 말고도 대리로 고문을 받는 비공식 제도도 있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양반이나 재산가일 경우, 피고인이 산 대리피고인이 동헌의 형틀에 앉아서 '내 죄를 알렸다' 하는 사또의 호통에 '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를 연발하는 것이다. 그것은 합법의 성격을 띤 고문이었다. 이조의 지방수령들은 행정권과 사법권을 동시에 갖고서, 도지사와 군수와 검사와 판사의 기능을 한꺼번에 했다. 그런데 그들의 사법처리 절차에서 고문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는가 하면 공개적이었다. 어떤 혐의를 받은 백성이 피의사실을 부인하면 매질을 하거나 약형을 가함으로써 이실직고

를 하게 만들 수 있다고 믿은 것이 그 시대의 '과학적 수사'의 정신이었다. 물론 어질고 양심적인 지방수령들은 그런 짓을 하지 않았지만, 봉건사회 말기에 자본주의의 싹이 트면서 관리들과 상인들의 결탁이 심해지던 때 고문은 상습화되었다. 고문의 제도화에 대해 힘없는 백성이 이의를 말할 수도 없었고, 고문을 하는 관리들도 그것이 대단한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요즈음 들어 다시 부쩍 늘어난 고문 폭로와 '보복고문'의 소식을 들으면서 나는 봉건시대의 고문자들과 현대의 고문자들을 비교해 본다. 봉건시대의 관료들은 거의 모두가 '증거주의'나 '과학적 수사'라는 개념을 정확히 인식하지는 못



마음의 건강이 무너진다는 것은 아이들도 아는 상식이다. 잠을 자고 싶을 때나 잠이 올 때 재우지 않는 것은 전기고문이나 물고문에 못지 않은 고통을 준다. 70년대 초에 우리나라에 첫선을 보였다가 얼마 전에 서울 혜화동 예술마당 '금강'에서 열린 '정치영화제'에 다시 나타난 코스타 가브라스 감독의 <고백>은 '잠 고문'의 극치를 보여준다. 1951년 체코에서 미국의 이중간첩 사건에 얽혀 속청재판에 넘겨지기 전에 주인공은 지하 조사실에서 끝없이 걸을 것을 강요당한다. 그는 졸음을 못이겨 비틀거리다 '걸어!' 하는 헌병의 한 마디에 사막을 건듯 좁은 방을 걸어간다.

야당도 민주화, 국민도 민주화, 집권 세력까지도 민주화를 외치는 이 마당에 수사기관이 '잠 고문'을 예사로 하고 있다는 소식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이런 끔찍한 이야기를 듣고 "고문자를 잡아내라" "고문의 허수인과 책임자를 응징하라"고 사대질만 하고 있을 것인가?

고문은 그것 없이는 지탱될 수 없는 체제의 본질을 가장 날카롭게 드러낸다. "이래 봐도 일제 때 독립투사들을 때려잡은 실력이야"라고 자랑하던 수사관들이 이승만 독재시대부터 정권을 버려주었음을 잘 아는 우리는 요즈음 다시 고개를 든 고문을 보면서 '공안정국'의 검은 안개 속에 숨어 있는 사람들을 연상하게 된다.

매품을 팔려던 흥부와 "내 죄를 내가 알렸다"를 호기있게 외치면서 고문을 하던 원님들의 시대에는 그래도 고문을 당하는 것을 남들이 보았으니 하소연할 데라도 있었다. 그러나 고문자들이 제도화된 틀 안에 숨어서 잠을 안 재우고 물을 먹이는 이 '민주화' 시대의 희생자들은 피맺힌 울음만 울어야 한다.

<논설위원>

흥부의 매품과 '잠 고문'

산겨레신문

89. 8. 29

했을 것이다. 그러나 포도청의 포교나 포졸이 증거가 무엇인지 몰랐을 리는 없고 수령 방백들이 죄없는 사람을 매질하면서 양심의 가책을 안 느끼지는 않았겠지만, 어쨌든 그들은 어둠 속에서 그런 짓을 하지는 않았다.

현대의 고문자들은 철저히 검은 장막 뒤에 숨어 있다. 그들은 고문을 당한 사람이 폭로를 해도 우선 부인부터 하고 본다. 고문은 헌병이 금하고 있는 큰 죄이며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라는 것을 그들 스스로 명백히 알고 있기 때문이다. 고문이 사회를 떠들썩하게 하면서 정권의 운명을 결정할 정도로 심각한 정치문제가 된 적이 더러 있었지만, 명백한 증거가 나타날 때까지 고문을 직접 한 자들이나 지시한 자들이 제 입으로 실토한 일은 없었다. 전두환 정권의 도덕성을 뿌리째 뒤흔든 박종철·권인숙·김근태 씨 고문사건에서도 수사기관은 국민의 여론과 민주세력의 공세에 밀려하는 수 없이 피의자들을 기소했을 뿐이다.

80년대에 고문이 거의 완벽하게 사라진 '한 시절' 있었다. 87년초에 박종철 씨가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고문에 목숨을 잃은 직후가 그랬다. 그때부터 정치범들은 남영동이나 장안동에 가서 조사를 받을 때, 그 전에 많은 '박종철'들이 고개를 쳐박하던 육조에서 실제로 목욕도 하고 '선생'이나 '씨'를 꼬박꼬박 불리는 '공손한' 수사관들로부터 예우를 받았다고 한다. 88년 2월에 들어선 6공화국은 '5공 청산'을 공약했으므로 물론 고문 같은 것은 하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공안정국'의 살을 에는 겨울바람에 묻어 고문을 당했다는 사람들의 하소연이 들리고 고문을 폭로했다고 해서 '보복고문'을 당했다는 어느 화가의 처참한 이야기도 전해져온다.

서경원 의원 사건으로 끌려간 사람들에서 '평양축전'의 설계그림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은 예술가들에 이르기까지 하나같이 가족이나 변호인에게 한 이야기는 잠을 안 재우거나 덜 재우는 고문에 관한 것이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몸과

'잠 안재우기' 고문 뿌리뽑아야

상처 남지않아 수사당국 자행 일쑤 피의자들 사고능력 마비시켜...정신병 위험도

1989. 8. 29

“잠고문때 자백 증거능력 인정 말아야”

공안정국의 장기화 속에서 피의자를 며칠씩 잠재우지 않는 이른바 '잠고문'이 새로운 형태의 가혹행위로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많은 정신의학과와 변호사들은 이 '잠고문'이 일반인의 상상을 뛰어 넘어 피의자의 집중력을 물론 정상적인 사고능력까지 마비시켜 정신병 증세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 법원이 잠을 자지 못한 상태에서의 진술에 대해서 그 임의성을 인정하지 말아야 하며 심각한 인권침해로 법적 금지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변호사와 시국관련 구속자 가족들에 따르면 최근 안기부와 검찰에서 '잠안재우기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대형 걸개 그림 '민족해방운동사'를 그리고 그 슬라이드를 평양축전에 보냈다는 이유로 구속된 홍성담(34) 차일환(30) 정허수(38)씨와 시경원 의원을 비롯, 서 의원 사건관련 구속자인 이길재(50) 방양근(3

4)씨 등이다.

이들은 대개 연행 직후 3~4일간의 밤샘조사 등 조사기간 동안 길어야 1~3시간 정도밖에 자지 못해 수면부족으로 신체적·정신적으로 견딜 수 없는 상태에서 허위진술을 할 수밖에 없었으며, 흥취와 정씨 등은 변호인 접견 때 주위를 의식하며 안절부절 못하는 불안한 모습이어서 수면부족으로 인한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듯했다는 것이다. 심지어 서경원 의원은 잠을 못자 "차라리 지금 사형집행해 달라"고 호소할 정도였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6년 10월 경기도경 대공분실에 연행, 관절뽑기 등 각종 고문과 함께 잠을 못자는 고문으로 고통을 받았다는 박충렬(30)씨도 "처음 1~2일간은 긴장돼 잠도 오지 않았으나 나흘째부터는 풀린데도 잠을 재우지 않아 체력이 극도로 떨어지면서 미칠 것 같았다"며 조사중 잠 오지 않

는 약으로 보이는 녹색알약 4알씩을 먹이며 수사관 3~4명이 교대로 지키면서 잠을 못자게 구타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 종로신경정신과의원 김병후(34) 원장은 "잠고문' 즉 '수면박탈'은 명백한 가혹행위이며 적응력과 인내심·판단력이 떨어진 '수면박탈'상태에서의 진술은 정상적인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원장에 따르면 수면박탈이 진행됨에 따라 정신적인 불안과 감정적 저항기능 및 자아기능의 저하로 외부의 사소한 충격으로도 일시적인 정신병증세를 일으킬 수 있으며, 심한 경우에는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인화현상(de-personalization)' 및 언어기능의 장애까지 일으켜 7~8일간 계속되면 정신병 상태가 된다는 것이다.

또 수면부족 환자를 뇌파촬영하면 깨어있을 때라도 각성상태를 보여주는 알파 파가 나오지 않고 호르몬 분비기능 및 생체리듬도 파괴된다는 것이다.

유남영 변호사는 이와 관련 "육체적 고통을 주는 물고문·전기고문과는 달리 '잠고문'은 피의자의 의지력과 정신력의 한계를 파괴하는 것으로 피의자가 정신분열증을 일으키기 전에는 의상을 남기지 않는 '고문의 새로운 수법'이라며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피의자에 대한 신병관리와 수사의 분리가 제도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선수 변호사도 이러한 '잠고문'이 형법 제125조의 '가혹행위'에 해당돼 헌법 제12조7항, 형사소송법 제309조에 따라 그 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심수 석방·고문 중지 촉구

1989. 8. 27

5025-4기

재야·학생 시민대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천주교서울대교구 평신도공대위·서총련 등 재야·학생 8개 단체 회원 1천여명은 26일 오후 4시 고려대 학생회관 앞 '민주광장'에서 '양심수 석방 및 국가보안법 철폐 시민대회'를 갖고 △양심수 석방 △불법연행·고문수사 중지 및 민주운동 탄압기구인 안기부 해체 △조국통일운동의 최대장애물인 국가보안법 철폐 등 4개항

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결의문에서 "6공 화국 들어 5공화국 시절의 두배가 넘는 매일 4~5명씩의 학생·화가·교사·신부·스님 등이 구속되고 있으며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사람은 미확인자 1백80여명까지 합쳐 모두 4백40여명에 이르고 있다"고 밝히고 국가보안법의 즉각적 철폐를 위한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의 서명운동에 동참, 1989년을 '국가보안법 철폐의 해'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고문까지 '5공'으로 돌아가는가?

1989. 8. 29 '보복고문'의 책임자를 가려내야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 그동안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던 고문이 최근 이른바 '공안정국'에서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국가안전기획부에서 조사를 받은 사람들이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일이 잦은 가운데 이번에는 고문 사실을 폭로했다는 이유로 '보복고문'을 당했다는 사례까지 보도되었다.

안기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화가 차일환씨의 경우가 바로 그것이다. 차씨는 접견하러 온 변호사와 가족에게 고문사실을 알렸다는 이유로 가혹한 폭행을 당했다고 한다.

고문은 민주적 수사절차와 양립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인간사회에서 사라져야 할 반문명적 죄악이다. 수사관들이 보복고문을 한다고 해서 고문 사실이 영원히 은폐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착각이다.

우리는 지난 23일 김근태씨 고문사건과 관련된 재판에서, 당시 법원구치감에 근무하던 의경 정창화씨가 용감하게 진실을 밝히는 증언을 했다는 보도를 보았다. 정씨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때 정부 고위관리가 거짓증언을 하는 것을 보고 의문을 느껴 김근태씨의 고문 흔적에

대해 생생히 증언하러 스스로 법정에서 나왔다.

그렇다. 아무리 밀실에서 이루어지는 범죄라고 하더라도 고문의 흔적은 남게 마련이다. 고문 피해자의 몸에 남는 상처가 있고 그 흔적을 보게 되는 목격자가 있다. 심지어 죽어서도 고문은 밝혀진다. 바로 박종철씨의 경우가 그렇다.

'5공 회귀'라는 말이 있지만 고문의 경우처럼 가장 '신속하게' 심각한 정도로 광범한 '5공 회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곳도 드물 것이다. 고문이 이제 다시 '관행'이 되어버렸는데도 아무런 견제도 문책도 없다. 이런 현상은 수배된 지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잡히지 않고 있는 '고문기술자' 이근안씨 문제라든가 김근태씨를 고문한 경관이 버젓이 불구속으로 재판받고 있는 사실 등과 무관하지 않다.

검찰조차 고문 시비에 휩쓸려 있는 것을 보면서 오늘 공권력이 얼마나 타락하고 비인간화 되어 있는가를 알 수 있다. 검찰은 마땅히 이번 '보복고문'의 책임자를 가려내어 엄벌함으로써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본보기를 삼아야 한다. 고문의 비명소리가 계속 들리는 한 민주주의는 요원한 꿈이다.

동아 2
所載

日字: 1989. 8. 2.9

窓



拷問으로 영건전언

『사랑하는 부모님, 저 때문에 또 다시 가정의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죄를 이렇게만 들고 부모님 가슴에 못을 박아 이 영건의 도 없이 죽어 버렸습니다』

28일 이후 한 채이 단체인 사립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게 된 데 대해 사정하든 내용과 수사기관의 협박에 못이겨 친구의 이름을 밝힌 것만 자신의 『영건의』에 투영하는 듯하다가 잠정이었다.

『이런 학기에 큰 東大에서 장영선 포항시청을 하는 부친을 밝히기 때문인지 언론을 위협 행위를 벌였다』

이런 부친의 對英健의

성의 소리를 추궁받으며 섰던 것이었다. 한때는 단정하고 아름다운 부친의 金冠(33)의 화려한 모습이 부친의 眞面目을 보여 주었다.

이 영건의 對英健의 眞面目을 보여 주었다. 이 단정하고 아름다운 부친의 眞面目을 보여 주었다. 이 단정하고 아름다운 부친의 眞面目을 보여 주었다.

手配친구 소재 밝혀 죄책감

후자가 진실과 정의를 위해 싸울 수 있도록 용기를 달라고 했다. 지난 9일 밤 사건의 터지고부터 압력의 시달리다 잠을 이루지 못해 수면제를 계속 복용해왔던 그는 9일 밤 12시경 잠을 나와 친구들을 전전하며 고민했다. 『영건의』를 통해 이 영건의 사상을 밝히게 됐다는 것이다. 9일 밤 12시경 그는 친구들을 『영 상 부모님의 가슴에 못을 박아 이 영건의 眞面目을 보여 주었다』

〈趙憲注기자〉

117

東亞日報社調查部

15

수사機關員에 被拉 野山서 생매장拷問

國民大生 주장

압박권 電話번호·남치차량 保安司소유확인

국민대생 金延禧(23)가 28일 오후 서울鍾路千禧池 동근부근의 한 관공서에서 자살을 기도한 뒤, 수사기관을 통해 생매장된 사실이 밝혀졌다.

김씨는 28일 오후 서울鍾路千禧池 동근부근의 한 관공서에서 자살을 기도한 뒤, 수사기관을 통해 생매장된 사실이 밝혀졌다. 김씨는 28일 오후 서울鍾路千禧池 동근부근의 한 관공서에서 자살을 기도한 뒤, 수사기관을 통해 생매장된 사실이 밝혀졌다.

김씨의 생매장된 사실은 28일 오후 서울鍾路千禧池 동근부근의 한 관공서에서 자살을 기도한 뒤, 수사기관을 통해 생매장된 사실이 밝혀졌다.

金延禧(23)는 28일 오후 서울鍾路千禧池 동근부근의 한 관공서에서 자살을 기도한 뒤, 수사기관을 통해 생매장된 사실이 밝혀졌다.

김씨는 28일 오후 서울鍾路千禧池 동근부근의 한 관공서에서 자살을 기도한 뒤, 수사기관을 통해 생매장된 사실이 밝혀졌다.

김씨의 생매장된 사실은 28일 오후 서울鍾路千禧池 동근부근의 한 관공서에서 자살을 기도한 뒤, 수사기관을 통해 생매장된 사실이 밝혀졌다.

分類號: 703 29 日字: 1989. 8. 23 所載: 2 2014 15

國防部 강력否認

한편 김씨의 생매장된 사실은 28일 오후 서울鍾路千禧池 동근부근의 한 관공서에서 자살을 기도한 뒤, 수사기관을 통해 생매장된 사실이 밝혀졌다.

김씨는 28일 오후 서울鍾路千禧池 동근부근의 한 관공서에서 자살을 기도한 뒤, 수사기관을 통해 생매장된 사실이 밝혀졌다.

김씨의 생매장된 사실은 28일 오후 서울鍾路千禧池 동근부근의 한 관공서에서 자살을 기도한 뒤, 수사기관을 통해 생매장된 사실이 밝혀졌다.

分類
系號

703

日字

1989. 8. 30

所載

1

1

생매장위협한일없다 軍수사 요원 접촉 사실

國防部 「국민대생 携問」 관련 발표

국방부는 30일 오전 국민대생 김재현(47)의 양친전언과 관련해 「군수사관들이」

을 만나 수배자 접촉을 위해 협조를 부탁한 것이 사실이냐는 질문에 채우고 부를 가린 채 야산으로 끌고가 폭구명 이 행적이 있다고 발표했다. 국방부 김재현대변인은 군수사관에서 전장을 조사한 결과 이 전사자인 부근로안사원들의 단속수사관들이 林務卿 양 민영을 사견과 관련된 지명수배인 任鍾德(12명 중 국민대생 金政德)의 소재 추적과 정보에서 발췌된 것이라고 밝혔다.

김대변인은 金政德의 소재를 찾는데 협조해달라고 부탁한 뒤 김의 양친으로 연락한 사무실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었으며 11일 오후 6시 40분께 국민대생 전화를 받고 양산장으로 나갔다가 김대변인의 부모를 만나 사실은 있다고 밝힌 뒤 그후 오후 16일과 18일 김을 2차례 더 만나 수배자의 소재를 알렸다고 부연했다.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김대변인은 수사관들이 그후 21일 오후 2시 30분께 김의 21일 오후 2시 30분께 김의 양친을 만나 김의 소재를 알렸다고 밝혔다. 김대변인은 김의 소재를 알 수 없다고 밝혔다. 김대변인은 김의 수사관들이 김의 소재를 알 수 없다고 밝혔다.

거기엔 활을 사 활용을 하고 있다. 김대변인은 김의 소재를 알 수 없다고 밝혔다.

703

동아

日字 : 1989. 8. 30

所載

國民대생 매장위협 國防部서 강대부인 국대생 30일 오전 국민대생 김재현(47)의 양친전언과 관련해 「군수사관들이」 을 만나 수배자 접촉을 위해 협조를 부탁한 것이 사실이냐는 질문에 채우고 부를 가린 채 야산으로 끌고가 폭구명 이 행적이 있다고 발표했다. 국방부 김재현대변인은 군수사관에서 전장을 조사한 결과 이 전사자인 부근로안사원들의 단속수사관들이 林務卿 양 민영을 사견과 관련된 지명수배인 任鍾德(12명 중 국민대생 金政德)의 소재 추적과 정보에서 발췌된 것이라고 밝혔다.

分類號 : 707 동아

日字 : 1989. 8. 31

所載

軍기관 民間人 수사 논란

國民大生 「양심선언」과 국방부 해명 안판

국민대생 김진환(29)의 「양심선언」 사건은 30일 국방부 인사관리국에서 발표된 대대적 보도에 따라 「동아일보」의 보도가 사건의 실정(實情)을 드러내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진환은 8월 24일 「양심선언」을 발표한 뒤 「국방부 인사관리국」에 재입교를 신청하고, 그날밤인 25일 새벽 「양심선언」을 철회했다.

국민대생 김진환(29)의 「양심선언」 사건은 30일 국방부 인사관리국에서 발표된 대대적 보도에 따라 「동아일보」의 보도가 사건의 실정(實情)을 드러내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진환은 8월 24일 「양심선언」을 발표한 뒤 「국방부 인사관리국」에 재입교를 신청하고, 그날밤인 25일 새벽 「양심선언」을 철회했다.

반면으로 수배된 사람들의 대다수 사라고도 해도 과연 국민이 모두 대화생이라고는 민간 인사들의 비추어 군사사기 관리가 민관 합성의 사건의 어느 한 부분이 남는다.

내부의 민주화 의지를 확신할 수 있었다. 이번 사건 역시 국방부가 스스로 진상규명을 앞장서는 것이 민관 합성의 위화점을 해소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지적이다.

수배자 검거위한 활동 査察 아니다 국방부

국방부에서 이 사건을 「양심선언」과 「양심선언」을 발표한 김진환(29)의 「양심선언」을 철회했다. 김진환은 8월 24일 「양심선언」을 발표한 뒤 「국방부 인사관리국」에 재입교를 신청하고, 그날밤인 25일 새벽 「양심선언」을 철회했다.

국민대생 김진환(29)의 「양심선언」 사건은 30일 국방부 인사관리국에서 발표된 대대적 보도에 따라 「동아일보」의 보도가 사건의 실정(實情)을 드러내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진환은 8월 24일 「양심선언」을 발표한 뒤 「국방부 인사관리국」에 재입교를 신청하고, 그날밤인 25일 새벽 「양심선언」을 철회했다.

국민대생 김진환(29)의 「양심선언」 사건은 30일 국방부 인사관리국에서 발표된 대대적 보도에 따라 「동아일보」의 보도가 사건의 실정(實情)을 드러내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진환은 8월 24일 「양심선언」을 발표한 뒤 「국방부 인사관리국」에 재입교를 신청하고, 그날밤인 25일 새벽 「양심선언」을 철회했다.

국민대생 김진환(29)의 「양심선언」 사건은 30일 국방부 인사관리국에서 발표된 대대적 보도에 따라 「동아일보」의 보도가 사건의 실정(實情)을 드러내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진환은 8월 24일 「양심선언」을 발표한 뒤 「국방부 인사관리국」에 재입교를 신청하고, 그날밤인 25일 새벽 「양심선언」을 철회했다.

〈趙憲注기자〉

類號

703

日字

1989. 9. 4

所載

동아

2

非正常에 대한 감각마비

— 모든 테러폭력사건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

社說

5공정치를 종식시키고 6공을 출범시키면서 불의의 타도와 정의의 진리의 대한 국민적 열망이 불타올랐다. 불법을 옹호하지 않고 주권을 실현하고 權力의 남용을 막아내려고 법의 지배를 실현시키고자 하는 민중의 심연사임으로써 한 마디로 民主社會에서든 불법을 용인할 수 없는 非正常을 치우히 자는데 국민적 意氣가 치솟았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민주사회에서든 용인할 수 없는 非正常」에 대한 국민의 저항의식이랄까 거부감이 모두 잊어지고 있거나 마비되고 있는 것으로 사회가 출몰을 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5공추진과 「光州 처각」가 지지부진한 것이 그 예이고 사회적인 모든 테러폭력사건의 차츰 고개를 넘고 있는 것이 그 예이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싶어하는 것, 즉 정치권의 부패보다도 후자, 즉 사회일반의 불법적인 행위를 대한 저항감의 마비이다. 이를파 기민이랄까 또 대단한 사회의식이 부딪고서 비민주적인 행위를 시노해 보아도 끝내 부패의 특색의 고질인 金權이랄까 혈연 핏줄이 배운 것이다.

전교조 蔚山 蔚州지회 사무실과 馬山 蔚山지회 사무실은 6공정치를 종식시키고 소위 민주적인 가련한 행위를 시노해 보아도 끝내 부패의 특색의 고질인 金權이랄까 혈연 핏줄이 배운 것이다.

무차별 타살해한 사건을 두고 우리는 어떤 사회 분위기와 환경 변화 관련시켜 볼 수만은 없으며 어떤 특정 행위의 대한 신성한 의무의 개념을 무시할 수 없다.

어떤 일파의 정치적 정치적 사회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고 그 반대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호수하기 위해 폭력의 의도적인 행위를 하려는 것이 사회적 피폐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우린 해방후에도 제대로 검토해 검토했다. 철저하면 정권을 발했던 中東에서 유일하게 평화와 안정만을 누렸던 데카는 이 유혈의 연쇄 테러의 향이 되었다. 中東이란 전쟁사마의서 평화의 오아시스였다. 그러나 이렇게 된 중요한 까닭의 하나가 있다. 기동계통의 그리스정교회론 뿐 아니라 諸派, 회교계통의 시아수니파의 평화롭게 공존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 초기의 폭력적 사수한 것으로 치부, 그러나 비민주적으로 그들의 힘이 됐다. 南美의 폭력사건이 비수한 과정을 겪었다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정세변화를 할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이들과 사건의 대립이거나 경제적인 부분만을 대한 정세변화가 폭력적 양산에 마저 되면 그것은 대항 투쟁이 전진적 양산이 될까 그러나 그 사회적 제반 조건, 南美化학자 박영

없다. 이제 조금은 民主化의 길의 느낌은 들으나 마를 느끼는 것 같고 해서 테러폭력의 대한 정세를 놓고 보면 어떤 두 사건의 대해 철저한 규명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것이 일부 주장하면 極右 테러단체의 수형이 사회적 혼란이 야기한 것이고 보는 이들의 驚動인지를 평가하려 한다. 이것은 가만히 보면, 또 가려졌다 하더라도 그 테러폭력의 또 다른 폭력적인 발생조건을 충분히

우리는 경제한다. 비단 이 문제뿐이다. 國民大生에 대한 보안사 직원의 「생매장」이 일부가 문제된 것은 마찬가지이다. 그럼한 현실을 봤다가 이전의 군부사회의 혼란사찰이 「민주사회에서 정정적인가」 여부를 따져보아야 한다. 이 모든 사건우리의 민주화를 막고 있는 것은 사태연행에 우리의 정세를 놓치지 말고 민주주의의 실현을 꾀하라. 그것이 장기간 민주회가 지는 시장에서 명백한 일이다.

우리가 정세변화를 할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이들과 사건의 대립이거나 경제적인 부분만을 대한 정세변화가 폭력적 양산에 마저 되면 그것은 대항 투쟁이 전진적 양산이 될까 그러나 그 사회적 제반 조건, 南美化학자 박영



140-100 서울 서울 02-1-01
所載 : 동아 일자 : 1989. 9. 8 0322

국민대생 軍수사관
검찰 11일 소환
국민대생 51명 중 10명
군수사관 1부 趙明遠
서울지검 형사 1부 趙明遠
사 8일 '법매장 위원회'를
했다고 주장하는 金建植
(23.전 국민대문과대 학생회
장)과 보안사 수사관 金孝洙
金建植씨(30)를 오는 11일 오후
2시에 소환 조사키로했다.
수사관 金씨 등은 지난 1일
술관이 양심전입을 통해 보
안사수사관들이 자신을 화원
프락티브로 포섭하고 있었을 거
라고 주장한 정 안을 했다.
고 추궁당한 金씨는 '金建植'을
검정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술관이 이 요망치 불명확한
질의로 인해 장난스런 것

김영

국민대생 51명 중 10명
군수사관 1부 趙明遠
서울지검 형사 1부 趙明遠
사 8일 '법매장 위원회'를
했다고 주장하는 金建植
(23.전 국민대문과대 학생회
장)과 보안사 수사관 金孝洙
金建植씨(30)를 오는 11일 오후
2시에 소환 조사키로했다.
수사관 金씨 등은 지난 1일
술관이 양심전입을 통해 보
안사수사관들이 자신을 화원
프락티브로 포섭하고 있었을 거
라고 주장한 정 안을 했다.
고 추궁당한 金씨는 '金建植'을
검정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술관이 이 요망치 불명확한
질의로 인해 장난스런 것

89. 9. 9
동아
「매주요일」대천위 16명
변이인간 구성
국민대생 金建植(30)은 지난 1일
술관이 이 요망치 불명확한
질의로 인해 장난스런 것
張任源(30)은 지난 1일 술관이 이 요망치 불명확한
질의로 인해 장난스런 것
朴相干 辛載夏 姜信五 「李仁
濟의원」 平民 民主黨 소속
국회의원 10명과 민주화운
위안 변홍시모임 소속 趙仁
현(30)은 지난 1일 술관이 이 요망치 불명확한
질의로 인해 장난스런 것
대천위는 또 지난 4일 국
발부장관에게 면담신청을 했
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
이 없었으며 오는 11일 낮
1시 국민대에서 집회를 갖
겠다고 밝혔다.



1989년 9월 21일

「증거보전 신청」 어떻게處理될까

공판정판이 계속되면서 수사기관에서 고문행위를 당한 피고인 김창현(34)의 변호인 김창현(34)은 증거보전 신청을 하였으나...

잇따른拷問 폭로... 法院태도 관심

이자를 집전한 변호인인 김창현(34)은 증거보전 신청을 하였으나...



「근로복지법」에 관한 신체검사의 실시... 김창현(34)은 증거보전 신청을 하였으나...

이들의 권한은 검찰청에 전속되어 있다. 이 때문에 김창현(34)은 증거보전 신청을 하였으나...

사실로 밝혀지면 재판에 큰 영향

法曹界 “合法的인 증거수집 유도 계기삼아야”

순찰자지 못해 철야조사를 받았으며 옷의 발가벗겨진 상태에서 구토할 정도로 고통을 겪었다...

이를 면피하기 위한 증거보전 신청을 하였으나...

이의를 제기한 김창현(34)은 증거보전 신청을 하였으나...

김창현(34)은 증거보전 신청을 하였으나...

Handwritten notes in red and black ink at the top left corner.

중... (Faint text in the left column, mostly illegible)

고문상처 증거보전 신청
화가 홍성담씨 변호인단
 평양축전에 전시된 대형 걸개 그림 '민족해방운동사' 제작과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민족민중미술운동전국연합 공동의장 홍성담(34)씨의 변호인 황인철 변호사 등 변호인단 5명은 30일 안기부에서 조사를 받던 중 고문을 받았다는 홍씨의 진술에 따라 무릎의 상처 등 홍씨의 신체 및 정신에 대한 감정요 구하는 증거보전신청을 서울형사지법에 냈다. 1989. 8. 31

왼쪽 귀·무릎등 상처·흔적 확인

1989. 9. 03

법원, 홍성담씨 고문증거 보전신청 검증

서울형사지법 임채균 판사는 4일 오전 평양축전에 그림을 그려 보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안기부에 구속된 민족민중미술운동 전국연합 공동대표 홍성담(34)씨의 고문증거보전신청에 따라 감중을 실시했다.

이날 검증에서 임 판사는 홍씨의 오른쪽 무릎과 정강이에 딱지가 떨어진 흔적 및 왼쪽 귓바퀴가 찢어졌던 상처를 확인, 사진을 찍었다.
 홍씨는 이 자리에서 걸로 드러난 상처 말고도 누워있으면 귀

안이 심하게 아프다고 말했으며 고문에 의한 노이로제는 상당히 나아졌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지난달 30일 증거보전신청때 함께 냈던 정신감정과 신체감정 가운데 정신감정 부분에 대해서는 감정유치를 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고 시일이 오래 걸린다는 점을 감안 취하였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서울대병원에서 일반외과 및 이비인후과 의사 1명씩이 결정되는 대로 신체감정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날 검증은 임 판사와 황인철·윤종현·김선수 변호사와 김학의 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형사지법 315호 신문실에서 약 30분 동안 진행됐다.

이... (Faint text in the bottom left column, mostly illegible)

이... (Faint text in the bottom right column, mostly illegible)

125

1989년 9월 23일

(M) 12500

홍성담씨 '안기부 고문' 확인

50022-472

신체감정 결과 의사소견 홍씨 진술과 일치

평양측전 걸개그림 유출사건과 관련, 국가보안법상의 간첩 등 혐의로 구속된 민족미술운동전국연합 건설준비위원회 공동의장 홍성담(35)씨에 대한 신체정밀감정 결과 홍씨의 무릎 등에 생긴 상처는 둔기에 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대 의대 초교수 이윤성(법의학)씨 등이 21일 재판부인 서울형사지법 임채균 판사에게 보낸 신체감정 결과에 따르면, 홍씨의 오른쪽 무릎과 정강이 및 왼쪽 귀 등에 생긴 상처는 "둔기에 의해 약 2~6주 전에 생긴 것"으로 결론짓고 있으며 상처발생 시기가 안기부의 조사 때와 일치하고 있어 홍씨의 고문피해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홍씨에 대한 신체감정은 지난 6일 실시됐으며 홍씨는 지난 7월 31일 안기부에 강제연행돼 8월 22일 검찰에 송치됐다.

또 감정서에는 신체 손상의 원

인에 대해 △오른쪽 무릎 부분은 구둣발에 차일 때 스치며 생길 수 있는 찰과상 △오른쪽 정강이 부분도 구둣발에 차여 생길 수 있는 외상 △왼쪽 귀 안쪽 부분은 손톱 등 뾰족한 물체에 긁혀 생길 수 있는 손상 △왼쪽 귀 바깥쪽 부분은 귀를 손톱이나 다른 뾰족한 물체로 비틀때 생길 수 있

는 손상이라는 소견을 내놓았다. 감정서의 이같은 소견은 홍씨가 지난달 24일 서울구치소에서 있는 변호인 접견에서 자신이 안기부에서 밟아밧긴 채 하루 2~3 시간씩 두 손을 들고 무릎을 꿇은 채 구둣발로 무릎을 짓밟혔다고 진술한 사실 등과 일치하고 있다.

1989. 9. 23

Сентер for Human Rights, Korea

이 동 등 을 가 례 례

分類番號

703

日字: 1989 9 29

所載:

15

稅關員이 물拷問

회사代表에 脫稅자백 강요

裁定신청받아들여 2명 재판회부

【釜山=黃烈憲기자】釜山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金德澤 부장판사)는 27일 釜山시중구 중앙동 수출업체인 해진상사 대표 박명철씨(36)가 낸 재정신청사건 당사자인

전 釜山부세관 심리국 심리 과수사 1계장 林興雨씨(50·馬山세관 2계장 趙善植·심리 과수사 1계장 關世우·사보 楊 培培씨(38·馬山세관 2계장) 등 2명의 고문사실을 인정, 독 죄과 폭행혐의로 釜山지방법원에서 재판하도록 결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釜山부세관 심리국 심리과수사 1계장 趙善植(46)에 대해서는(상사의 지시에 따라 고문에 가담했으며, 그 동안 중대한 직무수행으로 국 가에 기여한 공이 있는 점) 등을 들어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이와따라 고문세관원 2명은 釜山지법의 1심 재판부 가 지정한 판공수유제 변호사(특별검사)에 의해 법원에 기소되며, 담당재판부는 신변 확보를 위해 재판지각전 이 들을 구속할 것으로 보인다. 유신 이후 시국과 관련된 재정신청사건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진 것은 민청련의 장 金權泰씨(43)사건에 이어 몇 차례 있었지만 형사사법으로 처리 지방고법에서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지기는 이번 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들은 지난 86년 4월 27일 釜山부세관 심리국 심리과 수사 계 조사실에서 박명철씨에 대한 관세포탈혐의를 조사하던 서 박씨가 일제 건장머리 스 위장수입사건에 관해 자 백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단 폭행에 가한 후 포탈태 이므로 눈을 가리거나 다른 조 사를 방해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 지른 사실에 인정된다"고 밝혔다.

사실로 옮겨 패턴만 입은 알 물고문 고문대에 놓여 양발 목을 묶고 양손에 수갑을 채 우 후 얼굴에 수건을 덮고 주 전자로 코에 물을 붓는 등 고문 수차례에 걸쳐 반복 해 박씨에게 2주의 상처를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86년 1심인 釜山지법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되자 지난 87년 7월 22일 釜山지법에 고문세관원들을 상대로 고소장을 냈으나 87년 12월 15일 釜山지법으로부터 폭행사실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받자 87년 12월 28일 釜山고법에 재정신청을 냈었다.

東亞日報社調查部

물고문 세관원 재판 회부

부산고법 피해자 재정신청 받아들여

【부산=이수윤 기자】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신태 부장판사)는 27일 부산 중구 중앙동 1가 21 수출업체인 해진상사 대표 박명철(36)씨가 낸 재정신청 사건에 대해 전 부산세관 수사1계장 임흥우(50·현 마산세관·부산 남구 문현동 41 한양아파트 3동 707호)씨와 수사1계 관세주사보 양현배(38·현 마산세관·부산 남구 평안2동 170-2 동양연립 나동 205호)씨 등 2명의 고문사실을 인정, 독죄과 폭행혐의로 부산지법에서 재판하도록 재정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들은 지난 86년 4월 27일 부산세관 수사계 조사실에서 박씨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관세포탈) 사건을 조사하던 서 박씨가 자백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단폭행한 뒤 포탈태이므로 눈을 가리고 알몸으로 고문대에 놓여 양발목을 묶고 손에 수갑을 채운 뒤 얼굴에 수건을 덮고 주전자로 코에 물을 붓는 물고문을 수차례에 걸쳐 반복 해 박씨에게 전치2주의 상처를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1989. 9. 28

이근안경감이 고문으로 간첩혐의 조작 납북귀환 여부 무죄 확정

1989. 9. 30

5702호-11기

대법원, 검찰 상고기각
10개월째 종적을 감추고 있는 '전기고문 기술자' 이근안(51) 전 경기도경 공안분실장이 고문을 통해 간첩으로 조작, 구속했던 납북귀환 여부가 대법원에 의해 무죄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재성

대법관)는 29일 이씨에게 72일 동안 영장 없이 불법 구금당한 채 물고문·전기고문 끝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김성학(39·전파상·경기 하남시 신장1동 427-66)씨에 대해 검찰의 상고를 기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무죄를

선고한 1·2심의 판결이유를 살펴볼 때 원심이 채증법칙을 위반했다거나 증거판단에 오류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며 법리 오해의 위법도 찾아볼 수 없다"고 상고기각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 4월24일 수원지법 형사1부(재판장 이영복 부장판사)가 "김씨에 대한 조서는 김씨가

72일 동안 구금돼 정신적·육체적·심리적으로 억압된 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 허위자백의 개연성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 무죄를 선고하자 대법원에 상고했었다.
김씨는 지난 71년 오징어잡이를 하다 납북돼 72년에 귀환했는데 85년 12월2일 영장 없이 경기도경 대공분실에 연행돼 이근안 씨 등 경찰관들에게 전기고문·물고문·잠안제우기·굶기 등 갖은 고문을 당하고 불법구금 72일만인 86년 2월 간첩죄 등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재판장 (이준기 판사의 이어)

이근안씨는 1971년 오징어잡이를 하다가 납북되어 1972년에 귀환했다. 귀환 후 1985년 12월 2일 경기도경 대공분실에 연행되어 이근안 씨 등 경찰관들에게 전기고문·물고문·잠안제우기·굶기 등 갖은 고문을 당하고 불법구금 72일만인 1986년 2월 간첩죄 등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제3장 (지법 문지)

高校生 3명 警察서 맞아

仁川 勞動관련 포스터 붙이다 연행

【仁川 崔健기자】 노동자대
학 관련 포스터를 붙이려고

日字: 1999 10 28

分類:
番號: 703

본사

교생 3명이 경찰에 연행돼
7시간동안 조사를 받은 과
정에서 5차례나 폭행을 당
한 사실이 피검학생들의 진
정요청, 학생회장 등의 촉
고였다.

【仁川崔健기자】한 중
고(8)급 남녀학생 3명
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후 4
시경 仁川시 龍宮洞에 인하
대부근에서 청년 경찰들에
가진 불법포스터(유신정권장
권(유신부) 발행의 「열사의
한민이란 포스터」 3백여장
을 붙이려는 시도를 경찰관 7
8명에게 연행돼 인근 영등

파출소와 중부경찰서로 끌려
가 이날 밤 11시 풀려날때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폭행
당했다는 것이다.

파출소로 연행된 申君은
이 포스터(전 「열사」를
붙이려고)인 아버지 정철환
씨(부)와 양친을 안 구타당
했기며 청년경찰서로 끌려가
풀려날때까지 두통을 호소했
다고 하며 머리카락도 찢어
질 5차례 폭행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담임 蘇某교사가
신원인수를 써준후 풀려
났.

申君은 경찰에서 △포스
터 붙여 △선교조 仁川지부의
의 관련 여부 △교사들의 의
사회 교원사태의 사생활을 △
재양생(전)의 관련 여부 등
에 대해 진술을 할 예정이었
으나 연행됐다.

이와 관련해 청년경찰서 관계
자가 「신라」에 연행된 조사
한적은 있으나 구타당한
점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들이 지난 23일부터
27일까지의 2학기 중간고사
기간중 오후시간을 이용해 1
장당 50원씩 반기도 하고 포
스터를 부착해왔다.

이들은 23일부터 27일까지
중간고사 기간 중 오후 시간
을 이용해 반도 1장당 50원
씩 포스터를 부착해왔다.
이들은 23일부터 27일까지
중간고사 기간 중 오후 시간
을 이용해 반도 1장당 50원
씩 포스터를 부착해왔다.
이들은 23일부터 27일까지
중간고사 기간 중 오후 시간
을 이용해 반도 1장당 50원
씩 포스터를 부착해왔다.

이들은 23일부터 27일까지
중간고사 기간 중 오후 시간
을 이용해 반도 1장당 50원
씩 포스터를 부착해왔다.
이들은 23일부터 27일까지
중간고사 기간 중 오후 시간
을 이용해 반도 1장당 50원
씩 포스터를 부착해왔다.

이들은 23일부터 27일까지
중간고사 기간 중 오후 시간
을 이용해 반도 1장당 50원
씩 포스터를 부착해왔다.
이들은 23일부터 27일까지
중간고사 기간 중 오후 시간
을 이용해 반도 1장당 50원
씩 포스터를 부착해왔다.

拷問당한 사람의 고통과 배상

가만히 앉고 싶은 생각이 없을 때
 왜냐 하면 내가 앉고 싶지 않다. 그 때문에
 내가 앉고 싶은 마음은 없다. 나는 앉고
 싶지 않다. 나는 앉고 싶지 않다. 나는
 앉고 싶지 않다. 나는 앉고 싶지 않다.

『拷問당한 사람의 고통과 배상』은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에 대한
 연구의 결과이다. 이 책은 이 주제에
 대한 연구의 결과이다. 이 책은 이
 주제에 대한 연구의 결과이다. 이
 책은 이 주제에 대한 연구의 결과
 이다. 이 책은 이 주제에 대한 연구
 의 결과이다. 이 책은 이 주제에
 대한 연구의 결과이다. 이 책은 이
 주제에 대한 연구의 결과이다. 이
 책은 이 주제에 대한 연구의 결과
 이다.

영양과 건강을 위한 방법이다. 그것은
 건강을 위한 방법이다. 그것은 건강
 을 위한 방법이다. 그것은 건강을
 위한 방법이다. 그것은 건강을 위한
 방법이다. 그것은 건강을 위한 방법
 이다. 그것은 건강을 위한 방법이다.

『拷問당한 사람의 고통과 배상』은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에 대한
 연구의 결과이다. 이 책은 이 주제
 에 대한 연구의 결과이다. 이 책은
 이 주제에 대한 연구의 결과이다.
 이 책은 이 주제에 대한 연구의
 결과이다. 이 책은 이 주제에 대한
 연구의 결과이다. 이 책은 이 주제
 에 대한 연구의 결과이다. 이 책은
 이 주제에 대한 연구의 결과이다.

拷問당한 사람은 유죄 판결을 받거나
 사형선고를 받는다. 그러나 그들은
 배상을 받지 못한다. 그들은 배상
 을 받지 못한다. 그들은 배상을
 받지 못한다. 그들은 배상을 받지
 못한다. 그들은 배상을 받지 못한다.

拷問당한 사람은 유죄 판결을 받거나
 사형선고를 받는다. 그러나 그들은
 배상을 받지 못한다. 그들은 배상
 을 받지 못한다. 그들은 배상을
 받지 못한다. 그들은 배상을 받지
 못한다. 그들은 배상을 받지 못한다.

拷問당한 사람은 유죄 판결을 받거나
 사형선고를 받는다. 그러나 그들은
 배상을 받지 못한다. 그들은 배상
 을 받지 못한다. 그들은 배상을
 받지 못한다. 그들은 배상을 받지
 못한다. 그들은 배상을 받지 못한다.

拷問당한 사람은 유죄 판결을 받거나
 사형선고를 받는다. 그러나 그들은
 배상을 받지 못한다. 그들은 배상
 을 받지 못한다. 그들은 배상을
 받지 못한다. 그들은 배상을 받지
 못한다. 그들은 배상을 받지 못한다.

어둠이아 울수없이 죽되조차

명동사공우회

1989년 10월 29일 발행 /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1가 11-11번지 명동사공우회 / 전화 02-377-1111

본회 창간 10주년 기념 특집 / '1989년 10월 29일' / '명동사공우회' / '10월 29일' / '1989년 10월 29일'

1989년 10월 29일 발행 /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1가 11-11번지 명동사공우회 / 전화 02-377-1111

1989. 10. 29 뇌물혐의 공무원 자백 강요

검찰서 가혹 수사

법원 "폭행 못이겨 허위자백" 무죄선고

서울형사지법 합의23부(재판장 홍석계 부장판사)는 28일 상호신용금고 업자로부터 상호신용금고법 개정예에 힘써달라는 부탁과 함께 1천1백5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된 재무부 이재국 중소기업융과장 이인원(44)씨에게 "피고인이 검찰수사과정에서 회유·협박 및 인격적 모독을 당한 상태에서 허위자백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검찰에서의 진술이 고문 등에 의하지 않은 자유스런 상태에서는 피고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임의성을 인정, 유죄를 선고해 온 지금까지의 법원 판결경향과 달리 임의성 기준을 엄격하게 해석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또 이씨에게 뇌물준 혐의로 기소됐던 김영규(61·신한상호신용금고 대표이사)씨에게도 뇌물공여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신용금고자금 3억3천만원을 횡령한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두 피고인의 5차례에 걸친 검찰진술에서 뇌물액수와 제공 경위 등이 매번 달라 일관성이 없고 이 피고인의 경우 수사관으로부터 인격적인 모욕을 당해 '결망적인' 상태에서 검사 및 수사관의 회유에 따라 자포자기적 심정에서 허위진술한 것으로 판단돼 진술의 임의성에

의문이 간다"고 밝혔다.

이씨는 그동안의 재판과정에서 "당시 서울지검 특수부 이상물 검사실에게 조사를 받을 때 뇌물 수수사실을 부인하자 수사관이 사무실 바닥에 강제로 꿰어앉히고 머리와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해 심한 모멸감과 좌절감에 빠진 상태에서 이 검사가 '김씨가 모두 자백했으니 당신도 김씨의 진술대로 자백해 선처를 구하라'고 회유함에 따라 허위자백했

다"고 진술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14일 김씨로부터 상호신용금고에서 여·수신업무할 수 있도록 법개정에 힘써주고 상호신용금고 업자의 업무 편의를 보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7차례에 걸쳐 1천1백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김씨와 함께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었다.

당시 이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지검 이상물 검사는 지난 1월 출국, 영국의 대학에서 연수중이다.

1989년 10월 29일 발행 /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1가 11-11번지 명동사공우회 / 전화 02-377-1111

分類號 703

日字 1999 10. 29

所載 2 版

2

東亞日報社調查部

檢察고문 책임물이라

모든 수사기관 즉 경찰이든 검찰이든 피의자를 수사하면서...

그러나 사형명령의선과 아무런도 「도판」을 하지 않음...

한나라 「형법」의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을...

고있다. 같은 피의자 신문서라도 법사가 작성한 것과...

그러나 과연 우린 검찰에 이런 신뢰를 줘야 할까...

이 사건 피고인인 前제부부 중순을 유죄판정 수 「법정」...

서도 수사사실을 부인하자 수사관이 「판정」...

사실 그 동안 검찰수사방법에 대해서가...

이런 「판정」을 제기된 후에도 검찰이 「판정」...

만약 이것이 인정되면 「판정」을...

아미리인사 1989.12.4

아미리인사 1989.12.4 4 所載: 2 版 17

703

日字: 1989.12.4

所載: 2 版

17

부(재판장) 김충환(부장판사)
 4인 시열(1) 최정호(재판장)
 파출소 사인(출발사) 신(재)
 1989년 4월 4일 재판(판결)하
 재판(판결)하 부(재판장) 김충환
 4인 시열(2) 최정호(재판장)
 재판(판결)하 부(재판장) 김충환
 53·前(재판장) 최정호(재판장) 42
 前(재판장) 최정호(재판장) 42
 前(재판장) 최정호(재판장) 42
 재판(판결)하 부(재판장) 김충환

이제라도... 재판(판결)하 부(재판장) 김충환
 시열(1) 최정호(재판장) 42
 파출소 사인(출발사) 신(재)
 1989년 4월 4일 재판(판결)하
 재판(판결)하 부(재판장) 김충환
 4인 시열(2) 최정호(재판장)
 재판(판결)하 부(재판장) 김충환
 53·前(재판장) 최정호(재판장) 42
 前(재판장) 최정호(재판장) 42
 前(재판장) 최정호(재판장) 42
 재판(판결)하 부(재판장) 김충환

이것이... 재판(판결)하 부(재판장) 김충환
 시열(1) 최정호(재판장) 42
 파출소 사인(출발사) 신(재)
 1989년 4월 4일 재판(판결)하
 재판(판결)하 부(재판장) 김충환
 4인 시열(2) 최정호(재판장)
 재판(판결)하 부(재판장) 김충환
 53·前(재판장) 최정호(재판장) 42
 前(재판장) 최정호(재판장) 42
 前(재판장) 최정호(재판장) 42
 재판(판결)하 부(재판장) 김충환

1. 아미리인사 1989.12.4

재판(판결)하 부(재판장) 김충환

이제라도... 재판(판결)하 부(재판장) 김충환

“이창국장로 간첩사건 안기부에서 고문조작”

인천목회자협 재조사 요구

[인천=김영환 기자] 인천 기독교목회자협의회 인천위원회(위원장 박종기 신부)는 지난 84년 간첩혐의로 구속돼 복역중인 인천 창영교회 이창국 장로가 고문수사에 의해 사건이 조작됐다는 진상보고서를 발표하고 전면 재조사를 요구했다.

인천 기독교목회자협의회 인천위는 14일 오후 7시 인천시 동구 송림동 동인교회에서 열린 세계 인권선언 41돌 기념 연합예배 때 가진 국가보안법에 의한 피해사례 발표에서 이같이 밝히고, “진

상조사 활동을 통해 이씨 사건을 인정하기엔 너무도 많은 의문과 모순점이 발견됐으며 간첩행위를 했다는 범죄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본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자백이외에는 전혀 없다”면서 “이씨는 77일 동안 안기부 남산 지하실에 구금된 상태에서 고문과 협박에 못겨 허위자백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호소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지난 84년 5월1일 안기부원에 의해 연행,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돼 85년 7월9일 대법원에서 징역 15년 자격정지 15년의 유죄판결을 받고 현재 안동교도소에 수감중이다.

70325 日字 1989. 12. 16 동가 所

李韓烈군 추모文集 발간

추모사업회서 詩斷想 등 77편 수록

지난 87년 6월 발간된 「추모사업회서」는 추모사업회 발간 10주년을 기념하여 추모사업회 회원들의 추모시를 모은 것이다. 이집은 추모사업회 이사장 이창국 장로가 16일 오후 5시 인천대에서 출판기념회를 갖는다. 이 책은 당시 발간된 「추모사업회서」와 「추모사업회서」 24편의 시와 53편의 단상을 수록했다.

이 책은 추모사업회 회원들의 추모시를 모은 것이다. 이집은 추모사업회 이사장 이창국 장로가 16일 오후 5시 인천대에서 출판기념회를 갖는다. 이 책은 당시 발간된 「추모사업회서」와 「추모사업회서」 24편의 시와 53편의 단상을 수록했다.

한 자신의 유언을 엮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시를 남기기도 했다.

그대 왜 가는가 / 어릴 때는 / 그대 등 뒤에 / 내려갈 / 린사들을 / 마저 / 손에 / 고어 / 가는가 / 이 물결 / 저간 / 그대 뒤를 따라 / 사선 / 만 / 열매가 / 함께 / 가야 / 한 / 가...

87년 8월 발간된 추모사업회서 「추모사업회서」의 10주년을 기념하여 추모사업회 회원들의 추모시를 모은 것이다. 이집은 추모사업회 이사장 이창국 장로가 16일 오후 5시 인천대에서 출판기념회를 갖는다. 이 책은 당시 발간된 「추모사업회서」와 「추모사업회서」 24편의 시와 53편의 단상을 수록했다.

〈韓起興기자〉

경향신문 1989. 12. 16. 목요일

“안기부 고문당해 유산

1989. 12. 16

김영애씨 첫공판 임신 알려도 각목구타”

국제평화대행진 추진경과 및
 입수경 반복일정 등을 유럽민협
 의 어수갑씨에게 보고했다는 이
 유로 국가보안법상의 자진지원
 기밀누설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영애(32·여·전국청년운동협의회
 원주지부장)씨에 대한 첫 공판이
 15일 서울형사지법 합의23부(재
 판장 홍석제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김씨는 이날 모두진술에서 “국
 가안전기획부는 영장도 없이 강
 제 연행한 뒤 3일이 지난 뒤에야
 영장을 발부받아 중부경찰서로
 단 10분간 옮겨 놓았다가 다시
 데려갔다”며 “육설과 폭언은 물론
 무릎을 꿇려놓고 구둑발로 턱
 을 차면서 조사를 했으며 야전침
 대각목으로 ‘은몸에 멍이 들도록
 구타해 유산을 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당시 안기부에서 ‘임
 신중인 것 같으니 제발 구타만은
 말아달라’고 호소했음에도 수사
 관들은 구타를 계속해 서울 구치
 소로 옮겨진 뒤 보름간 하혈을
 했다”면서 “정식으로 산부인과의
 진찰을 받지 못해 고소를 못하는
 것이 억울하다”고 말했다.

페 스치안본부 대공분실 등 폭압
 기구 해체 등을 요구했다.

대한성공회 정의실천사제단(대
 표 이대용 신부)도 이날 성명을
 발표, “5공비리와 광주문체의 근
 본적인 해결은 비리와 학살의 주
 범들을 형사처벌할 때에만 이루
 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1989. 12. 16. 목요일

1989. 12. 16. 목요일

1989. 12. 16. 목요일

1989. 12. 16. 목요일

고문사건 수사·심리 '실종'

5건 계류 공안정국 뒤 검찰·법원 손놓아

1990. 01. 06.

"5공청산 선언으로 영구미제 조짐" 우려

국가안전기획부와 경찰 등 대공수사기관에서 고문을 당했다는 피해자들의 고소·고발·재정신청 사건이 검찰과 법원의 소극적인 태도로 처리되지 않고 있다.

특히 여야 4당이 사실상 5공청산을 매듭짓기로 해 5공 당시의 고문사건은 영구미제사건으로 묻혀버릴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현재 검찰에 계류중인 고문사건은 지난 86년 10월 이른바 '반제동맹당사건'으로 구속기소됐던 박충렬(30)씨 등 11명이 경기도 경 대공분실 소속 경찰관 12명을 상대로 낸 것 등 3건이며, 법원에도 김근태씨 고문경관들에 대한 독직폭행사건과 남북어부 김성학(38·경기도 광주군 동부읍)씨가 역시 경기도경 대공분실 소속 경찰관 16명을 상대로 낸 재정신청 등 2건이 계류중이다.

반제동맹당 사건의 경우 지난해 1월11일 박씨 등이 수사를 맡았던 이근안·한중철·이강원씨 등 3명과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9명을 서울지검에 독직폭행 혐의로 고소, 검찰은 지난해 2월초까지 고소인들만 한차례 불렀을 뿐 이후 공안정국의 소용돌이속에서 더이상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채 지금에 이르고 있다.

고소인 중의 한 사람인 이민영(28)씨는 "고소직후 한번 조사를 한 뒤 지금까지 아무 연락조차 없다"면서 "피고소인이 특정돼 있어 대결신문 등을 통해 충분히 혐의를 밝혀낼 수 있을텐데 검찰이 의도적으로 수사를 기피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대형결개그림 '민족해방운동사' 제작과 관련, 구속기소됐던 전국민족민중미술운동연합 건설준비위 공동의장 홍성담(34)씨는 지난해 12월8일 자신을 수사했던 신원미상의 안기부 수사관 2명의 몸타주를 그려 독직폭행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했으며 같은 민미련 회원 차일환(30)씨도 안기부 인천분실 소속 수사관 김군성씨와 대구분실 소속 이인희씨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고소했으나 아직 고소인 조사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 사건은 6공하에서도 여전히 고문이 가해지고 있다는 피해자들의 주장으로 세간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으며 홍씨에 대해서는 고문피해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의사의 신체감정서가 법원에 증거로 보존돼 주목을 끌기도 했다. 남북어부 김씨의 재정신청사건은 87년 12월 제출돼 2년이 넘었는

데도 결정이 미뤄지고 있다.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2부의 한 판사는 "구속사건이 밀려 심리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당사자인 김씨는 "간첩혐의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이미 무죄확정판결을 받았을 뿐 아니라 지난 88년말 5공비리 수사 당시 고문사실을 알고 있는 경찰관과 고문으로 실신한 나를 진찰한 의사가 검찰에서 고문사실을 그대로 진술한 바 있다"면서 빠른 시간내에 법원이 결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밖에 김근태씨 고문경관 4명에 대한 독직폭행 사건도 지난 88년 서울 고법에 의해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졌으나 부천서 성고문 사건의 문귀동 피고인과는 달리 불구속 상태로 아직 결심공판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박성민 변호사는 "상급법원에 의해 이미 범죄혐의가 인정됐을 뿐 아니라 피고인들의 증거인멸 우려가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김근태씨 고문경관들을 구속하지 않는 것은 부천서 사건과의 형평이란 면뿐 아니라 국민들의 법감정에도 맞지 않는 처사"라면서 "법원과 검찰이 지난해 공안정국 조성 이후 시류를 의식해서인지 수

사기관의 인권유린행위에 대해 5공시절에 못지 않은 무감각한 태도를 보여왔는데 최근 제도정치권의 '5공청산' 선언으로 아예 영구미제사건으로 묻혀지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137

30000: '한겨레' 내의 '한겨레신문' 판권정보 제공을 위해 제작된 33 11-330
13000: '한겨레' 내의 '한겨레신문' 판권정보 제공을 위해 제작된 33 11-330

안기부 '고문' 폭로·수사관 몽타주 제작 배포

574 1990. 01. 09.

차일환씨·민가협에 협박전화

국가안전기획부(부장 서동권)에서 조사받으며 고문당했다고 주장한 차일환(31·화가)씨 집과 '고문수사관 몽타주' <<한겨레신문>> 11월9일자 11면)를 담은 포스터를 배포한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사무실 등지에 6일 협박전화 3통이 잇따라 걸려온 것으로 8일 알려졌다.
1 차씨에 따르면 6일 오후 3시5분께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서울 구로구 오류동의 아버지 집

에 머물고 있는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와 "OO신문 기자"라고 말한 뒤 "독일병정을 아느냐. 독일병정과 무슨 원수를 짓느냐. 불량한 아버지를 죽이고 싶지 않으면 구로동 당신 집에 빨리 가 있어라. 가족들을 몰살시키겠다"고 협박했다는 것이다.
차씨는 평양축전에 대형걸개그림 '민족해방사'의 슬라이드를 보낸 것과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중이던 지난 11월 '독

일병정'이란 별명을 가진 안기부 인천분실 소속 수사관 김군성씨 등 수사관 6명을 가혹행위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차씨는 지난해 12월29일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또 차씨가 전화를 받은 것과 비슷한 시각에 차씨에게 전화를 건 남자와 동일한 인물로 추정되

는 30대가량의 남자로부터 전 민가협간사 정태근(27)씨와 민가협 사무실에도 잇따라 "홍성담씨 고문수사관고발 포스터 제작자를 죽이겠다"는 내용의 협박전화가 걸려왔다.
민가협 간사 홍인순(25·여)씨에 따르면 이 남자가 정씨를 찾아 "있다"고 하자 "포스터를 안 새긴 곳이 어디냐"고 물은 뒤 "포스터를 만든 사람을 잡아서 찢어 죽이겠다"고 협박했다는 것이다.
민가협은 구속중인 홍씨가 직접 그런 안기부 수사관 2명의 몽타주를 담은 '홍성담씨를 간첩으로 조작한 고문수사관 고발'이라는 제목의 포스터 2천여장을 제작, 이 가운데 1천여장을 지난해 12월 허순 전국 각지역 재야단체 등에 배포한 바 있다.

등아. 90. 1. 9

拷問주장 車日煥씨 집
협박전화 2번 걸려와
안기부에서 조사를 받던 중
고문당했다고 주장한 민중화
가 車日煥씨(인) 집안에 지난 6
일과 9일 잇따라 협박전화
가 2차례 걸려온 것으로 알
려졌다.
9일 車씨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3시경 서울 九松구
梧柳동 아버지집에 머물고 있
는 자신에게 신원을 알 수 없는
40대 후반 남자가 전화를
걸어와 "독일병정과 무슨 원
수를 짓느냐. 불량한 아버지
를 죽이고 싶지 않으면 빨리
집에 오라고 협박했다."

「한겨레신문」 1990. 01. 17. 「서울」 13면

치안본부 특수대, 시민 불법연행 고문

2억5천만원 지급약정서 받아내

주택공사 수사의뢰 형상없이 끌고가 매질

민사재판 과정에서 2년만에 드러나

치안본부 특수수사대가 주택공사로부터 전세금 손실을 보충하기 위한 수사의뢰를 받고 전 건물주를 불법연행, 가혹·고문수사로 허위자술서를 받아낸 사실이 민사재판과정을 통해 드러났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김형선 부장판사)는 16일 대한주택공사가 김진기(서울 양천구 목1동)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피고 김씨 등이 작성한 약정서는 치안본부 특수수사대에 불법연행돼 잠 안재우 기 고문 및 구타 등에 의해 강압 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 무효"라

고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전세금 손실 보충을 위한 주택공사측의 수사의뢰를 받은 치본 특수대는 지난 87년 9월23일 검찰로부터 횡령·사기죄 구성이 어렵다는 수사지휘를 받고도 주택공사 직원을 시켜 김씨를 서울 영등포구 신길2동 치안본부 특수수사2대 조사실로 연행, 만 35시간 동안 잠을 재우지 않고 주먹과 구둑발로 구타한 데다 연행 다음날 면회들은 김씨의 형 진석씨에게도 동생을 구속할 것처럼 위협, 두사람

명의로 손실금 2억5천여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약정서를 받아냈다.

특수수사대에서 고문을 당한 김씨는 구둑발로 짓밟혀 대퇴부와 하퇴부 등에 전치10일의 타박상을 입었으며 지난해 5월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고문 후유증에 시달려 왔다.

주택공사측은 이 약정서를 토대로 김씨 형제에게 손실금 반환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었다.

지난 85년 8월 인천시 남구 만수동 진우빌딩 주인이었던 김씨는 당시 이 일대 토지구획사업을 벌이던 주택공사로부터 주택공사의 사업구역 안에 있던 경기도경

대공분실이 사용할 사무실 전세 계약을 제외받고 전세금 3억5천만원에 사무실 4개를 주택공사에 빌려주었다는 것이다.

김씨는 그 뒤 86년 9월30일 이 건물을 조아무개씨에게 매도, 건물에 대한 모든 권리가 조씨에게 넘어갔으며 주택공사는 사업이 완료된 뒤 조씨에게 전세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조씨가 이를 거절하자 조씨를 상대로 전세금 반환 청구소송을 내 승소했다.

주공측은 그러나 그 사이 건물지가 하락으로 모두 2억5천4백여만원의 손실을 보게 되자 지난 87년 9월 치안본부 특수수사대에 김씨가 전세금 횡령을 목적으로 자금능력이 없는 조씨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주었다며 횡령 등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2년만에 밝혀진 경찰 「拷問수사」 不法연행 3億臺 「각서」 받아

分室 빌려준 住公 의뢰받고
건물주 끌고가는 영문구타

特搜隊

서울고법, 「지급약정서」無効판결

치안본부 특수수사대가 대
한주택공사를 둘러싸고 전세금
발제해달라는 수사로 소송을 받
고 주재한 서울 전세금융회
를 상대로 민간인용 불법영행
가혹한 고문수사를 해 전세
금을 불려주겠다는 사위와
정조를 받았던 사위의 민사
재판판정승리를 인정했다.

서울민사소송부 (재판장
金炯환장판선)은 16일 주
택공사가 金顯起(서울영천
구 동대신3가지 이마트)를
상판의 전 임원인 한영태가 소
송 영문소송에서 「타고 솟쳐가
자정만 잠정조각」 지양민법특
수사단의 가혹행위 때문에
유죄판결을 받았으며, 「영문은
재」 민포 불법수사행위 승소
판결에 도전한 한영태에게
승소판결을 취소할 것을 원
고한 원고의 승소가 전격판
결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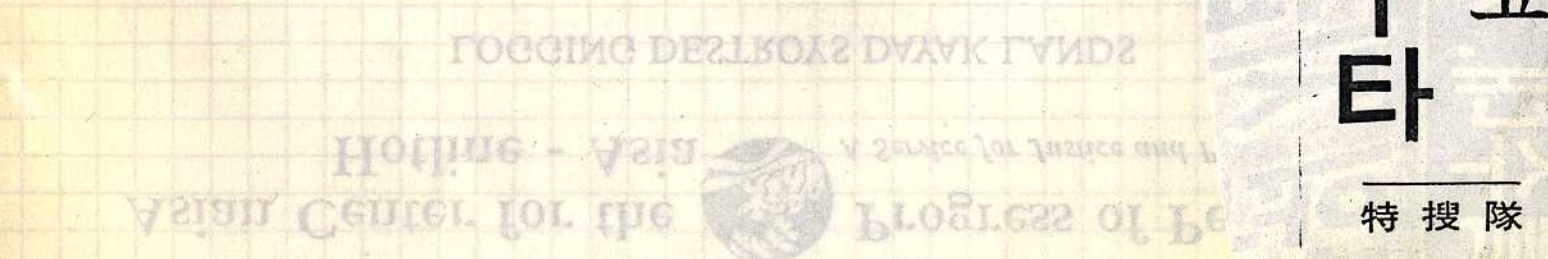
이 재판의 승소가 전격판
결되면서 한영태는 불법수사
를 저지할 수 있게 된다.
이 재판은 지난 1988년 12월 15
일 서울지방법원에서 서울지
법 88년 12월 15일 1005호 민사
1부 판결로 원고의 승소가 확정
되었다. 이 판결은 한영태가
소송 영문소송에서 「타고 솟
쳐가 자정만 잠정조각」 지양
민법특수사단의 가혹행위
때문에 유죄판결을 받았으며,
「영문은 재」 민포 불법수사
행위 승소판결에 도전한 한영
태에게 승소판결을 취소할 것
을 원고한 원고의 승소가 전격
판결되었다.

판결문의 의 다른면, 수사의
나선 치안본부 특수수대는 87년
9월 23일 12시쯤 주택공사
직원들을 시켜 솟쳐를 유인해
영문소송을 영문소송부에서
특수수사단으로 강제로 영문
원소씨의 무죄를 확정하고 영
문소송부 판정하에 가혹행위를
한 영문, 솟쳐의 영문소송부
전세금 3억 5천만 원에 대해 주

택공사의 불법영행가혹수사
행위를 인정하고, 「영문은 재」
민포 불법수사행위 승소판결에
도전한 한영태에게 승소판결을
취소할 것을 원고한 원고의 승
소가 전격판결되었다.

12월 17일 서울고법 제1부 재판장 김현배는 서울지방법원 제1부 판결을 인용하여 한영태의 승소가 전격판결되었다. 이 판결은 한영태가 소송 영문소송에서 「타고 솟쳐가 자정만 잠정조각」 지양민법특수사단의 가혹행위 때문에 유죄판결을 받았으며, 「영문은 재」 민포 불법수사행위 승소판결에 도전한 한영태에게 승소판결을 취소할 것을 원고한 원고의 승소가 전격판결되었다.

12월 17일 서울고법 제1부 재판장 김현배는 서울지방법원 제1부 판결을 인용하여 한영태의 승소가 전격판결되었다. 이 판결은 한영태가 소송 영문소송에서 「타고 솟쳐가 자정만 잠정조각」 지양민법특수사단의 가혹행위 때문에 유죄판결을 받았으며, 「영문은 재」 민포 불법수사행위 승소판결에 도전한 한영태에게 승소판결을 취소할 것을 원고한 원고의 승소가 전격판결되었다.



경찰拷問 3년만에 밝혀져

치안본부特搜隊 住公전세금 받아주려 건물주 연행 구타 「3億반환약정서」강요

서울高法 무효판결

치안본부 특수수사 2대가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전세금을 되돌려받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시민을 불법으로 가혹행위를 해 항의의정서를 받아낸 사실이 민사재판과정에서 3년만에 밝혀졌다. 서울고법민사 9부(재판장

金炯善)은 16일 대한주택공사가 金鎮起씨(서울 陽川구 木1동 신시가지아파트)를 상대로 낸 약정(金씨가 작성한 약정서)에 관하여 1심(서울지방법원)과 2심(서울고법)을 거친 뒤 서울고법에서 3년 만에 밝혀졌다.

판에 압박에 의해 작성된 것이므로 무효라며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원고인 주공은 지난 85년 8월 仁川시 南洞 1 萬善동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이곳에 있던 경기농림대학을 인수해 소유의 전세빌딩으로 옮겨주고 김씨에게 전세금과 담보주요인(金씨가 전세금

담보를 주었다. 그후 김씨는 86년 9월 이빌딩을 조모씨의 개인전세금을 떠맡는 조건으로 팔아 넘겼는데 같은해 12월 대공부장이 다시 이전하게 되자 주공은 조씨에게 전세금반환을 요구했다. 그러나 조씨가 내지 않자 주공은 이빌딩을 되돌려주지 않자 주공은 『金씨가 전세금

을 떼어내기 위해 고의로 채물(金씨가 구타한)을 가혹행위를 함에 압박을 주공은 3억 5천 만원 전액을 주공에 지급하겠다는 약정서를 받아들였다는 것.

金씨는 재판과정에서 『당시의 가혹행위로 전치 10일의 상해를 입고 소변검출 뒤』

왜 노고문으로 인한 후유증이므로 정신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또 『실제전세금담보 9천 6백만원이며 이 전담보 시설비 2억 5천 4백만원도 보전금담보로도 임시 보관했다가 전세계약을 해지할 때 되돌려주기로 했다는 내용의 항의의정서를 강제도했다고 주장했다.』

치안본부 수사부는 이에 대해 치안본부판계자는 17일 『자체조사결과 사실무근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건당시 金鎮起씨의 형인 金진석씨가 자 기친구인 경찰관 하모닝과 함께 특수수사 2대로 찾아가 사건경위를 알아보고 동생 김씨와 연대해 자신에게 약정서를 썼다고 밝혔다.』

유엔 인권위원회

제 1990. 2. 12 일자

제 703 호

세계 각국서 拷問 실행 유엔 인권위원회 제 1990. 2. 12 일자

제 703 호

세계 각국서 拷問 실행 유엔 인권위원회 제 1990. 2. 12 일자

頁次

703

동아

日字 : 1990. 2. 12

所載 :

2 版

面 : 2

세계 각국서 拷問 실행

유엔 인권위원회

제 1990. 2. 12 일자 세계 각국서 拷問 실행 유엔 인권위원회 제 1990. 2. 12 일자

김삼석·김은주씨 모두진술서

편집자주: 김삼석씨의 모두진술서는 42쪽이나 안기부와 검찰에서의 수사과정에서 고문·불법수사 부분만을 게재하였으며, 김은주씨의 경우는 요약하여 실었다.

<김삼석씨 모두진술>

“그들은 세상에 자신들이 남득할 수 없는 일이란 존재하지 않아야 하므로 무조건 자신들의 논리를 강요하며 불법수사로 일관하였습니다.”

9월 8일 정오경, 본인은 집에서 '일본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가입 저지문제'에 대한 원고들 집필중 안기부 수사관 10여명에 의해 불법연행되었습니다. 압수수색영장도 없이 본인의 '작은 도서관'인 방에서 10여간 보아오던 도서관원들과 3년간의 군사관련자료, 일본의 군사대국화, 전후처리 관련자료, 신문스크랩, 디스켓 등 사과상자로 십수상자를 옮겼습니다. 본인은 구타에 의해 무릎이 풀린 채로 신혼사진, 신혼비디오 테이프에다 일기장, 통장, 부인의 정신대 관련자료, 비디오 등 모든 것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한시간 전쯤에는 강남고속터미널에서 안기부의 협력자 배모씨의 심부름으로 강모씨에 의해 불러나온 여동생도 동시에 연행이 진행되고 있었고, 동시작전에 참여한 강모씨가 체포될 리 만무합니다. 남산 안기부로 연행되자마자 체육복으로 갈아입혀져 17일간 동안 구타와 기합, 협박, 성추행 등이 계속 진행되었고, 처음부터 팍팍가내로 '북한에 언제 갔다 왔느냐', '오스트리아에서 누구와 접선했느냐', '일본에서 북한의 누구와 만났느냐', '국내연계조직을 대라'며 위협하였고, 연행된 3-4일후 시간-날짜 개념을 잊은 채 거의 잠을 자지 못하였으며, 구타와 원산폭격, 서서 무릎쪼그리기 등의 가혹행위를 심수회에 걸쳐 당하며 유도신문과 협박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러던중 구속영장이 신청되었고, 다음날 다시 영장을 천천히 읽어보겠다며 수사책임자에게 요구하였으나 묵살되었습니다. 화장실 갈 때는 2-3명의 수사관과 동행하였고, 약 일주일 후 화장실에서 No.160의 명찰

을 단 수사관이 저의 성기에 다가가 자기 손이 더럽혀졌다며 치술을 대고서 '다마 넣었나 보자' '얼마나 큰가' 하면서 '다마를 넣지 않았네'라고 한 후 자기 손이 더럽혀졌다며 비누칠까지 하였습니다. 약 열흘 후에는 수사관 No.160과 다른 수사관으로부터 잠잘 새벽에 수사내용과 상관없는 한 여성을 떠올리며 '노쳐너 몇번 먹었나' '맛있더냐'라는 수차례의 위협에 그만하라는 말에도 아랑곳 않고 그들의 성적 노리개감이 되어야 했습니다.

수사중에 '누구누구도 다 붙었어' '한번 거꾸로 매달아볼까' '널 영원히 매장시킬 수 있어' '그 머리로 무슨 운동을 해'하며 수사책임자의 원색적인 인신공격과 '학생운동과는 질이 다르다'며 본인이 무슨 거창한 사건 주모자라도 되는 것처럼 몰아갔습니다.

목욕을 시킨다며 구타당한 왼쪽 가슴의 심한 통증을 가라앉히는 샴시가 하루에도 몇번씩 되었고, 협조 않으면 임신 8개월째인 부인을 연행조사하겠다는 협박이 계속 되었고, 다른 수사관은 '동구에서 공부한 이후 우리 회사에 취직하라'며 당근질하였습니다.

수사중에 본인의 전화와 안방대화까지 알고 있는 것으로 보아 광범위하고도 치밀한 전화도청, 뿐만 아니라 1년여에 걸친 미행과 사진촬영 등으로 사람의 피를 말리고 사람의 정신을 파괴하는 폭력을 서슴치 않는다는 것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피의자 신문조서는 이미 한꺼번에 작성한 것을 날짜를 적당히 소급하여 여러 날에 걸쳐 조사된 것으로 조작한 공문서 위조 또는 변조의 범죄행위에 다름 아닙니다. 그들의 요구대로 일본에서 북한공작원을 만나고 왔다는 진술조서는 쌓여만 갔고, 이 조작수사를 온몸으로 거부하며 본인은 9월 20일 변호인 접견과정에서 혀를 깨물고 벽에 머리를 부딪히는 자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안기부 지하실을 잠시나마 빠져나와 병원으로 실려가면서 '조금은 자유로운 공기'를 마시며 상처부위를 위로하였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오자마자 목에 기브스를 한 채로 한밤중에 3시간여동안 동료를 대라는 반인간적인, 동물적인

수사에 치를 떨어야 했고, 86년 10월 5공 치하에서의 고문후유증으로 아직까지 극도의 정신질환에 시달리는 문국진씨가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수사종료 이틀전에 수사책임자와 다른 수사관들은 '너 태어날 때 너희 부모가 북한보고 낳았지'하며 '이제 감옥생활하며 관계는 어떻게 가지냐'며 '혼자 벽보고 해야지'하면서 크게 비웃고 '한진' 올린데 대한 미소의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수사는 종료되고 저의 이름앞에 '간첩'이란 두 글자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시간에 다른 방의 제 여동생은 수사관들이 '머리를 잡고 벽에 부딪히게 하거나 뺨을 수없이 때리고, 변호인 접견 뒤에는 대화내용을 다 진술하라고 뒤통하면서 잠을 재우지 않고, 조사 중에 '이거 안되겠구만 다른 방으로 옮겨 옷 벗겨야 되겠구만.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아볼래'라는 등 폭언과 성적 모욕을 심하게 당하였습니다.

인간이란 애당초 가련한 사람의 이야기를 더욱 즐기는 습성을 가진 동물이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이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지 않았음을 다행으로 여기는 염치없는 동물이었습니다.

본인은 90년 10월 '보안사 민간인 사찰'을 세상에 폭로한 윤석양 이병의 양심선언 이후 '보안사 안기부 치안본부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라는 180쪽의 자료집을 만들어 공안 수사기관이 정권의 안보를 위해 경쟁하듯 전화도청, 정치사찰, 생매장 사건, 학원망원, 프락치공작, 강제징집과 녹화사업하는 반인권적인 행위를 폭로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민시대에 제가 이 자료집의 한 소재가 될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안기부는 변화했어야 합니다. 헌법 제17조, 제18조에는 통신과 사생활의 비밀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지만 공안당국에 의해 인간성을 말살하는 폭력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법과 제도에 관한 무수한 경구중에 특히 고문폐지와 양심의 자유를 강하게 주장한 몽테뉴는 그의 수상록 2권 11장, '잔혹함에 대하여'에서 인간의 잔혹성은 극도의 분노와 성적 환희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진단하고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가증스러운 것은 단순한 오락의 목적으로 다른 사람이나 동물을 학대·고문하는 일이라고 고발하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 싶습니다.

심신이 지칠대로 지친 채 검찰로 이송되어,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검찰의 진술조서는 계속되어 갔고, 뒤늦게 행사된,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의한 진술거부권 행사에 대해 검사의 폭언과 강압과 함께 '너가 그럴 줄 알았다'며 마음대로 하라며 이후에는 입회서기가 신문조서 작성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과연 이 사건 전체에서 검사가 형사소송법에 관한 권한에 따라 사법경찰관에 불과한 안기부의 수사를 감독하였는지, 적법한 구금과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감독하였는지를 검찰에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갖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묵비권'과 '증거능력'이라는 말을 꺼내자 검사는 '어쭙 증거능력'까지라고 하며 업신여기는 마당에서는 더이상 검찰에 기대할 것이 없었습니다.

본인은 법에 의해 보호하기는 커녕 오로지 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법기술자에 기대한다는 것은 무리였습니다. 또한 검찰의 공소장은 안기부의 논리를 120% 옮겨놓은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공소장의 정형화된 유치한 문구는 35년도 더 넘게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의 서두를 장식해왔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하건만 영원히 변하지 않는 나라. 사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북한이 내세우는 주장과 선전이 영구불변하는 진리이기라도 한단 말입니까. 35년전과 똑같은 문구로 이 시대의 젊은이들과 지성인들을 감옥에 가두어 재단하는 일이 왜 여전히 계속되어야 한단 말입니까. 북한이 대남적화전략을 버리고 평화평일론으로 간 것은 오래 전의 일입니다.

이제 우리 검찰이 국제화 시대에 걸맞게 북한의 변한 모습과 북한사회의 진정한 면면을 새롭게 한번 고찰하고 조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변에서 저를 아는 사람들은 그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평범한 사람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어머님께서도 여동생을 잡아가고 집을 수색하고, 책과 소지품 하물며 빈테이프까지 닥치는대로 가져간 안기부 수사관들에게 과일대접을 하신 분이었고, 막내 여동생 또한 책을 다시 찾으려온 그들에게 여기 있다며 전해주다시피할 정도로 따뜻하고 화목한 이러한 가정에서 저는 자랐습니다. 그러나 이제 너무나 순진한 것을 안 이후 이들은 가장 비판적이 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김은주씨 모두진술>

구치소에 와서 공소장을 보니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안기부에서 수사를 마치고 검찰에 와서도 수사내용 중에 내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안기부에서 수사내용과 똑같았습니다.

일본에 간 건만으로도 못갈 데를 간 듯이 일본에 왜 가게 되었나, 누구를 만나러 갔느냐라고 추궁을 하였습니다. 저는 일본어를 하다보니 공부하기 위해서 갔고, 일본에는 친구도 있어 돈이 별로 들지 않아서 갔었습니다.

일본에 가서 제일동포들이 36년간의 식민지라는 아픔의 역사를 지닌 채 현재에도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살고 있는 비극적 현실을 알게 되었고, 조국에서도 이들을 소외시켜 젊은이들은 귀화를 하거나 일본인과 결혼을 하는 등 문화적으로 동화되어 가고 있는 현실을 목격하였습니다. 또 우리 민족문화와 언어를 교육하는 곳이 별로 없어 민족에 대한 자긍심도 갖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조국에 대하여 더 알고 싶어 찾아오는 제일동포들에게 조총련과 연계되었다며 조국이 이들에게 준 것은 0.7명 감옥이었습니다. 친척들도 거의 없어 이분들은 거의 보살핌없이 지내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제 제일동포들을 남북분단의 정치희생물로 이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의 사건은 안기부의 과대포장, 조작, 함정수사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일본에 가서 사람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 지령수수가 되고, 말 지나 비행기에서 읽으려고 산 신문들은 목적수행 및 국가기밀누설이 되었습니다.

일본에서 온 와타나베라는 사람을 만났을 때의 이야기는 안기부에서 미리 써가지고 계속해서 반복하여 세뇌시켰습니다. 저는 수사관들의 폭력과 위협 앞에서 그들이 짠 각본에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10여명의 안기부 수사관들에게 9월 8일 강남터미널에서 연행되어 남산 안기부 지하실로 끌려가 군복으로 갈아입히고 수사를 받았습니다. 영장제시를 요구할 수도 없었습니다. 3일동안 잠을 거의 재우지 않아 내 자신을 지킬 수도 없었습니다.

또한 '너희 남매가 여기 끌려온 것을 누구도 모른다. 시체가 되어 나가도 모른다'는 말을 하여 오빠도 잡혀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끝났으니 사실대로 이야기하라며 주로

외부에 상처가 나지 않는 머리카락 등에 폭력을 당했고, 구둣발로 채이기도 하였었습니다.

심지어는 '이거 안되겠구만 다른 방으로 옮겨 옷 벗겨야 되겠구만.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아볼래'라며 위협하였고, 또한 수시로 성적 모욕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남매의 정을 이용하여 오빠에게 더욱 고통을 주겠다고 협박을 하기도 하였고, 날이 갈수록 저는 수사관들의 의도대로 간첩이 되어 갔습니다.

수사과정에서 알게 되었지만 사생활이 전혀 보장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르바이트 하는 가게에서 친구와 전화통화한 내용이나 식당에서 여러 친구와 나는 잡담등도 알고 있었습니다.

9월 8일 연행되기 2일전에 남누리 영상 대표 배인오가 '모래 일본에서 손님이 오는데 한국말을 전혀 못하니 통역을 부탁한다'고 하여 처음에는 거절하였으나 자꾸 부탁하여 어쩔 수 없이 승낙을 하였고, '강이라는 사람이다'고 하였습니다.

9월 8일 아침에 '강이 보낸 사람이다'는 전화가 왔는데 한국말을 너무 유창하게 하여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배인오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통화가 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나갔다가 안기부에 연행되었습니다.

안기부에 가서 안기부 직원이 많았는데 물건을 건네준 사람은 왜 놓쳤냐고 물었더니, 쫓아가다가 놓쳤고 너한테 신경을 쓰다 보니 그렇게 되었다고 하였으나, 제가 본 사람은 50대 후반의 사람이었고, 10여명이 넘는 젊은 사람들이었는데 쫓아가다가 놓쳤다는 말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안기부의 계획된 프로그램입니다. 배인오를 안기부의 프락치라고 생각하는 것은 다음 5가지 이유에서입니다.

첫째, 수사과정에서 배인오가 알고 있는 내용을 물어보면서도 배인오의 이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둘째, 제가 배인오가 부탁해서 나갔다고 이야기해도 다른 사람을 대라고 하였습니다.

셋째, 배인오와 한총련간부와 제가 왕십리 부근에서 만났을 때 안기부 수사관이 옆자리에 있었다고 하면서도 배인오에 대해선 언급이 없었습니다.

넷째, 왕십리에서의 우리들이 만나는 사진을 보여줄 때도 배인오 부분은 가리고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다섯째, 제가 연행될 당시의 상황을 볼 때 배인오가 프락치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